

광주시, '산업혁명시대 눈' 라이다·광학렌즈 육성

2018년부터 라이다 육성 38개사서 매출 87억 '가시적 성과' 7월 '광학소재산업지원 거점센터'도 개소...기술자립화 기대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 중심 도시’인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눈’으로 불리는 광학렌즈와 라이다(LiDAR)산업 선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미 라이다 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 탄생을 도왔으며, 오는 7월이면 광학렌즈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지원하게 될 ‘광학소재산업지원 거점센터’도 개소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자율주행차의 눈’인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 내 38개 회사에서 8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광주시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중인 ‘라이다(LiDAR) 융합 신산업’은 레이저를 발사해 물체에 반사돼 되돌아오는 빛을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 물체 형태 등을 측정하고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자율주행, 로봇, 드론, 가상·증강현실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정형 라이다를 생산하는 지역기업 에스오에스랩(대표 정지성)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만도,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총 17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회사는 2020년 특허청 세종대왕상 수상, CES 2021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시 라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지역 소재 기업 및 기관인 ㈜에스오에스랩, ㈜위엠스,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공동 참여해 방위사업청 주관 49억원 규모 ‘무인전투차량용 광각 고해상도 라이다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냈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원천기술 제품화 및 국산화를 위한 개발 지원, 제품 양산화를 위한 부품 원가 절감 설계 및 제작지원, 라이다 성능평가시설 및 개발환경 구축, 라이다협업체 구성·운영,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도 라이다 상용화 기술, 성능평가 시설, 마케팅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지난 11일에는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한국광기술원에서 ‘광학소재산업지원 거점센터’ 기공식을 갖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눈’으로 불리는 광학렌즈 등 카메라렌즈용 광학소재 산업화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카메라렌즈용 광학소재 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3년까지 3년 간 광학소재산업 지원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장비구축, 시제품 제작, 기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오는 7월에는 ‘광학소재산업 지원 거점센터’를 준공하고 자율주행차, 우주, 국방, 반도체 분야 등에서 활용 가능한 수입 광학소재 국산화 및 전주기 기업지원·유지, 강소기업 육성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학렌즈는 자동차, 스마트 기기, 통신, 보안갑 사용, 항공·우주, 의료용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핵심소재·부품 수입 후 가공 조립하는 단순 산업구조를 유지해 왔다.

시는 광학소재산업지원 거점센터가 구축되면 지역 광학기업의 산업구조 자립화를 통해 선진국형 고부가가치와 광학산업 전환 등 광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경호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장은 “라이다 산업과 카메라렌즈산업은 광주시의 주력산업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80억 들여 4계절 섬 관광객 유치

전남도가 올해 목포, 여수, 신안 등 6개 시군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 4계절 섬 관광객 수용태세 조기 구축을 위해 섬 관광지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전남지역 섬 방문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섬’인 신안·박지도, 보성·장도, 완도·생일도, 여수·순죽도, 영광·안마도, 진도·금호도 등의 관광객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섬 여행패턴도 단체 관광에서 소규모 가족단위 방문으로 변화하고 있고, 봄비지 않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섬이나 소도시 등 색다른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목포·장도·리조트 선착장 확장사업을 추진, 선박 접안과 여행객 불편이 없도록 해상교통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수·개도·테마관광지원 개발을 추진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대비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인,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

신안 화이트섬 관광지원화를 통해 장산도 일원에 향기로운 백색의 꽃이 피는 은목서를 테마로 허니문스테이 등을 조성한다.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섬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안 세계해대상 테마공원 조성사업, 장도 앞바다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고 갯벌 생태를 체험하는 여수 웅천·장도 해양예술촌 조성사업, 가고 싶은 섬 강진·가우도의 생태환경과 연계해 방문객에게 휴식과 탐방시설을 제공하는 강진·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 등도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스나 메르스 등의 바이러스 피해 회복사례에서 보듯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시점부터 4~5개월 지나면 평균 이상으로 아주 빠르게 관광수요가 회복된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도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섬 관광객 수요 변화에 발맞춰 관광객 맞을 체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광역단체장 평가 64.5% 6개월 연속 1위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7기 광역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새해 첫 평가 조사에서 긍정평가 64.5%로 6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주민 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도 전남은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내놓은 올해 1월 광역자치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에 대한 ‘잘한다’라는 긍정 평가는 전월보다 0.8% 포인트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광역단체장 중 긍정 평가가 60%를 넘은 시도지사는 김 지사가 유일했다.

전국 광역시도 주민 생활 만족도 평가 조사에서도 전남은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른 68.8%로 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의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27일~1월 2일과 1월 26일~1월 28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rolling) 시계열 자료분석 기법에 따라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2%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1일 오전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수시 화진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을 방문,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도 국가산단 점점 권한 필요”

김영록 지사, 여수산단 방문 제기

지난 11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 YNCC 공장 폭발사고’가 전남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산단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70년대 조성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여수시와 전남도가 관련 대책이 제대로 수립돼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내 YNCC 공장을 방문해 “폭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을 비롯해 권

오봉 여수시장, 여수소방서장, 공단 관계자 등도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선 김 지사는 지자체 점검 권한을 요구하면서, 노후 여수국가산단의 신속한 스마트산단으로의 리모델링,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노후산단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작업 과정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재해를 예방할 조치들이 꼭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산단지만 지자체도 단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가 참여해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후 여수국가산단을 산

업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스마트산단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함께 이번 폭발사고에 따른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중이다. 사고 현장인 여수 국가산단에는 여천NCC,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바스프, 효성엔지니어링 등 다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 곳에서는 최근 5년간 화재, 폭발, 가스 누출 등 모두 61건이 발생했다. 산단 사고의 대부분은 노후화와 안전불감증, 위험의 외주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전남도는 지난 11일자로 황기연(사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을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황 실장은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일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인사정책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지역공동체과장, 상훈담당관, 주소정책과장, 대통령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 행정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남도에서 인사교류로 근무하는 동안 장흥부군수, 경제통상과장, 일차리정출과장 등을 거쳤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송선문의: 061)834-3434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